

韓·美·日 電子産業의 상호 관계

本稿는 日本電子機械工業會의 專務理事인 高井敏夫 씨가 同工業會誌인「電子」8月號에 게재한 것으로 韓國電子工業振興會(EIAK)의 統計資料와 Los Angeles Times의 제임슨 記者가 쓴 글을 整理하여 분석한 것이다. 외국, 특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日本이 보는 韓國의 電子産業과 상호 관계는 어떠한가. 현 시점에서 우리 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긴급 게재한다. (編輯者 註)

머리말

필자는 經團聯이 파견한 미국투자환경조사단(총단장 盛田昭夫 會長)의 일원으로서 지난 6월 4일부터 약 2주일간에 걸쳐 미국의 서부, 동부, 중앙부에 있는 도합 6개 州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미국에 있는 동안 미국 각 지역에 있는 한국 전자산업의 presence가 차츰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큰 인상을 받았다. 그런데 LA 공항에서 盛田단장이 「전자관계에서 미국과 한국간의 마찰이 드디어 시작된 것 같다」면서 필자에게 이 날자의 Los Angeles times 기사를 내보였다. 당장 읽어보니 단장의 말대로 금년 4월 5일에 미국ITC가 한국제 Color TV에 대해 Dumping 稅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이래 전자산업분야에서 양국간의 알력이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韓·美 양국의 전자산업에 있어서의 마찰과 응수는 마치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걸쳐 美·日 家庭用 전자업계 사이에 벌어졌던 마찰과 어떤 의미에서는 놀랄 정도로 닮았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인지 현재의 韓·美관계와 당시의 美·日관계는 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복사판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들의 옛 상처를 건드리는 듯한 느낌이다.

韓·美의 兩電子業界의 관계는 일본과 한국

의 전자산업간 관계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로서는 무관심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이 Los Angeles times에 실린 제임슨기자의 서울발 보도기사는 家庭用 전자기기 분야에 놓여 있는 현재의 韓·美관계를 명쾌하게 분석하고, 해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필자는, 회원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소개해야겠다는 강한 충동을 받았다.

동시에 필자는 항상 일본의 전자산업과 한국의 전자산업을 직접 비교검토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귀국 직후 當 工業會의 사무국이 「韓國電子工業振興會(EIAK)」가 발행한 「韓國 電子工業의 오늘과 來日」이란 통계자료를 입수한 것을 알았다.

이상과 같이 주로 제임슨기자가 쓴 기사를 인용하면서 家庭用 전자산업분야에 있어서의 韓·美間 무역마찰의 실태와 EIAK와 당 공업회의 자료에 의거하여 일본과 한국의 전자산업을 소개, 비교하고 아울러 양국전자산업의 상호관계에 대해 私見을 記述하기로 한다.

第I部 家庭用電子産業분야에 있어서의 韓·美間的 무역마찰

1. 문제의 배경

제임슨기자는 미국과 한국과는 한국동란 이래 유지됐던 특수관계가 바야흐로 중대한 시련에

봉착하고 있다면서 한국인과 미국인 사이의 perception gap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전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韓·美間의 경제관계 마찰로 1950~53년의 한국동란 이래 유지되었던 양국의 특수관계가 시련에 봉착하고 있다」

「분명히 이전에도 섬유, 신발류, Color TV 분야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는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해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비난의 大畧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보다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 새로운 문제라는 것은 한국인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당연히 특별한 대우를 받는데 값어치가 있는, 살기위해 고심하고 있는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는 데 반하여, 미국인은 한국에 대해 좀더 대등한 무역상대국으로 처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점에 있다」

2. 한국측의 주장

다음 그는 무역마찰에 대한 한국인의 이론과 감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한국인이 화를 내고 있는 것은 금년 4월 30일 이후 미국이 한국제 Color TV에 대해 평균 14.64%의 Dumping稅를 부과한 것과, 미국이 한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인상하려는 데서 발단이 되고 있다」

「한국의 對美 비난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이 <제2의 일본>이 된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

- 한국의 경제상 업적을 誇大視하고 있는 것.

- 한국이 天然賦存資源이 부족하고 살아남기 위해, 또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출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

- 1인당 연간소득이 2,000弗 이하(필자註: 1981년 한국 1,698弗, 일본 9,684弗)로 아직 개발도상국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

- 한국이 국민총생산의 약 6%를 국방비로서 지불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공산주의 복괴의 군사위협하에 있는 사실을 배려하지 않는 것」

「商工部長官은 Color TV의 Dumping 판정을 정식으로 불공정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야당인 民韓黨은 Dumping 판정을 힐난하는 전례 없는

성명을 냈으며, 장래가 걸려있는 電子産業을 분쇄해 보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난하고 있다」

「한국의 야당의원들은 일부 여당의원과 더불어 농산물 수입선을 미국으로부터 다른 나라로 바꾸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치가도 실업가도 미국의 이같은 결정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극단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國內市場의 개방을 slow down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한국이 특히 견딜 수 없는 것은 한국의 구매 사절단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동안에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가 Color TV의 Dumping 판정을 내렸다는 사실이다. 이 사절단은 20억弗 상당의 미국 상품을 구매하는 계약에 서명했고 더우기 13억弗의 추가 수입교섭을 시작하고 있었다」

「미국은 얼마 안되는 대미수출액(83년 83억弗)(필자註: 83년 일본의 대미수출액은 428억弗)에 대해 그렇게까지 떠들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桂鳳赫 韓國貿易協會 副會長(당시)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 경제인들의 감정을 단적으로 대변한 것이다. 그는 造船業 이외에서는 아직도 개발도상국에 머무르고 있으며, 선진국을 따라가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인이 한국을 <제2의 일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당치도 않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무역수지도 경상수지도 적자인데 무엇으로 미국인은 우리 한국을 <제2의 일본>이라고 부르는가. 우리들이 일본을 따라가려면 20년에서 30년은 걸린다」(桂鳳赫 부회장)

이상과 같은 한국측의 주장과 태도로 봐서 우리들은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점에 대해 강한 인상을 받게 된다. 첫째는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에 걸쳐 TV의 Dumping 판정, 相計關稅提訴 및 反Trust法 위반제소 등 이른바 Multiple harassment에 우리들이 휩쓸리기 시작한 당시의 일본의 대응과 비교해 보면 한국측은 대항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全國民이 강경한 자세로 미국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점이다. 둘째는 한국은 미국이 <제2의 일본>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데 生理的이라 할 정도로 거부반응을 보인

점이다. 이것은 과거 역사적으로 불행했던 韓·日關係 및 한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한 한국동란이 일본에는 오히려 特需경기를 초래했다는 사실에 대한 한국민의 쌓이고 쌓인 對日感情을 배경으로, 과거 일본의 電子産業이 그러한 對美輸出 태도를 취하지 않았던들 미국은 한국에 대해 그러한 태도로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한국민의 생각이 단적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3. 미국측의 觀點

제임슨記者는 계속해서 주로 在韓 미국인으로부터 취재한 미국측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미국이 보호주의라는 한국민의 비난은 在韓 美國人을 성내게 하고 있다. 한국의 대미수출은 작년 32% 증가했음(필자註: 작년 일본의 증가율은 18%)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은 우리들을 보호무역주의자라고 지칭하고 있다. 미국만큼 무역의존국을 위해 배려하고 있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나 「兩國間의 不均衡은 미국이 Claim을 제기할 정도의 규모가 아니다. 작년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는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12억弗, 한국의 통계로는 19억弗이다. 신흥공업국(NICS) 가운데 문제되는 것은 臺灣이며 韓國이 아니다. 작년 臺灣의 대미무역 흑자는 65억 弗에 이르고 있으며 이것은 (臺灣과 日本의 경제적 격차를 고려하면) 작년 일본의 對美무역흑자 2백17억弗(필자註: 일본측 통계로는 182억弗)에 필적하는 규모」라면서 다소 한국측에 동정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무역장벽을 제거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또 옛날이면 개의치 않았을 광범한 안전에 대해 강경한 태도로 나오고 있다. 이들 안전 가운데는 한국이 특허권이나, 저작권을 포함하는 知的 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아직도 제정하지 않은 것이라든지 한국의 한미항공협정 위반 등 문제가 있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일본의 무역慣行과 거의 닮은 방법으로 특정품목분야를 집중적으로 수출하는 한국의 경향이다. 예를 들면 작년 Color TV의 대미수출은 3배, 철강

수출은 2배가 각각 증가했다.」

「한국의 對美수출 확대 방법에는 정치적인 배려가 결여되어 있다. 그것은 어미를 잃은 병아리를 쫓는 독수리와 꼭 닮았다.」

4. 한국측의 변명

이상과 같은 「미국측의 입장」에 대해 제임슨記者는 다음과 같이 한국측의 변명을 소개하고 있다.

「Color TV의 對美輸出이 83년에 190만 대로 3배가 늘어났다고는 하나 한국의 Color TV의 생산능력으로 본다면 이 숫자는 많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한국은 82년 중반까지 OMA로 對美輸出을 억제한 결과 미국 Color TV메이커는 그 사이에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시간을 벌었을 것이다. 미국의 Color TV産業은 한국보다 강한 경쟁력을 가진 外國메이커의 도전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金基壽 상공부차관) (필자註). 금년 4월 미국ITC가 공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83년 생산능력은 320만대 이상으로 추정된다. 또 이 조사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83년 한국의 對美輸出 台數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83년에 82년보다 3배 증가된다고 본다면 약 190만대가 된다. 83년 한국의 對美輸出과 미국의 對韓輸入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마도 83년 4/4 분기의 輸出增加가 미국의 83년 수입 통계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表 1 color TV의 韓美貿易

	1982年	1983年	증가율
韓國의 對美輸出	630千台	—	—
美國의 對韓輸入	621千台	1,573千台	253

「한국의 對美貿易 중 최대의 문제는 미국이 對韓 特惠關稅를 인상 내지는 特惠關稅 그 자체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일 것이다. 미국이 그같은 조치를 취한다면 일본이나 EC도 이에 추종할 우려가 있다. (무역협회 부회장 및 경제기획원 차관)」

「한국은 적어도 向後 10년간은 特惠關稅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상공부차관)」

5. 미국측의 再反論

이상과 같은 한국측의 주장에 대해 한국은 대미무역 position을 再考해야 한다는 미국측의 장기적인 관점에 입각한 再反論을 제임슨記者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을 대등한 무역상대국으로서 취급할 예정이며 그러한 점에서 한국인은 생각을 고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선진국에 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것을 바라고 있다. (워커 駐韓美大使)」

「한국의 실업가와 공무원들은 한국은 어려운 세계환경 속에서 무역 확대를 지향, 국가의 존속을 여기에 걸고, 큰 handicap을 짊어지면서 싸우고 있는 작은 나라라는 自画像을 그리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종종 오늘날의 한국은 25년 전의 한국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익스 ITC 위원장)」

「미국의 對韓貿易赤字는 지금은 작지만 이적자는 앞으로 틀림없이 확대될 것이다. 1960년대의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價格競争에 의한 수출로부터 品質競争力에 의한 수출로 전환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한국의 對美수출의존도는 이미 정치적으로 위험한 수준까지 높아졌다.

말하자면 1982년의 의존도는 29%, 이것이 83년에는 34%로 높아졌고 금년 1/4분기에는 41%에 이르렀다. 신흥공업국의 대미수출확대 의욕을 미국 시장은 도대체 얼마만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한국은 경제계획을 발표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는 兩國間의 貿易不均衡이 앞으로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한국인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EIAK는 수출목표를 공표하는 것을 중지하고 있다.

「늦어도 1987년에는 한국제 승용차의 對美輸出이 시작되었지만 이것도 미국의 對韓貿易의 적자확대로 이어진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미국의 電子機器 및 자동차 메이커는 부품구매선을 일본으로부터 한국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적자가 늘어나는 원인이 된다.

「한편 한국 정부의 국내시장에 대한 극단적인 보호정책은 그대로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정부

는 수입자유화율을 1988년까지 95%로 높이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미국정부는 한국이 말하는 자유화는 수입수량제한과 수입금지를 제거하는 대신 높은 關稅를 도입하여 이를 서서히 인하하는 것을 뜻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한국의 관세인하계획은 현행의 평균 22%~40% 또는 그 이상의 관세율인 것도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의 현행 평균 관세율은 3%이다.

6. 양쪽 모두 韓美關係의 장래를 樂觀視

「이에 또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관계자들은 韓·美 양국의 장래를 낙관하고 있으며 한국은 대미 흑자폭을 처분할 수 없을 정도로 늘릴 생각이 없다는 한국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ITC의 익스위윈장은 무역마찰이 심각해지면 한미군사동맹관계자가 큰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을 한국인들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상공부차관도 똑같이 韓·美 양국정부의〈특수관계〉에 언급하면서 무역이 확대하면 으레히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지만 양국정부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제임슨記者는 이상으로 한미무역마찰 문제에 관한 기사를 맺고 있다.

7. 한국 Color TV 産業의 동향

가. 앞서 4에서 인용한 ITC 자료에 의하면 과거 수년간 한국 Color TV 産業의 생산, 국내 출하 등의 추이는 다음 表 2 와 같다.

表 2 Color TV 産業의 動向

(單位: 千台)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生産	97	584	422	947	2,378	2,398
國內出荷	0	0	0	230	1,265	1,288
對美輸出	105	535	222	379	589	630
總輸出	110	627	417	715	1,033	1,107

當 공업회가 조사한 바로는 83년도 생산은 4백 2십만대, 84년의 생산전망은 5백만 대에서 6백만대 사이가 된다.

1977년(일본이 OMA 협정에 의한 Color TV

의 대미수출규제를 시작한 해) 이전에는 한국의 Color TV 생산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그후 생산은 급속하게 증가하여 현재는 일본, 미국 및 서독에 이어 세계 제 4위의 생산국으로 부상됐다(제 5위는 대만). 1977년과 78년에는 對美 수출대수는 총생산 및 총수출대수와 거의 맞먹었다. 1979년 이후 총수출 중에 차지하는 對美 輸出의 share는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히 높다.

나. 1979년까지 국내출하가 제로였던 것은 한국정부가 1980년에 이르러 처음으로 Color TV의 국내판매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다. Color TV의 대미수출은 79년 2월부터 82년 6월까지 OMA 협정으로 규제되고 있었다. 80년 6월 30일에 끝난 제 1차 OMA 협정에서의 輸出限度는 28만 9천대였다. 이 결과 앞서 記述한 바와 같이 79년의 대미수출은 前년에 비해 격감했다. 제 1차 협정은 연장되어 80년 7월부터 81년 6월까지의 限度는 38만 5천대, 81년 7월부터 82년 6월까지의 限度는 57만 5천대였다. 82년 6월에 협정이 失効된 후 82년 하반기부터 83년에 걸쳐 대미수출이 급증, 이것이 Dumping 판정에 이어지게 된다. 한국의 對美輸出 Color TV의 screen size는 주로 13인치와 19인치이며, 일본제 Color TV의 對美輸出 screen size의 구성과 닮았다.

라. 80년과 81년에는 美國市場에서의 한국은 일본 및 대만에 이어 제 3위의 수출국, 82년에는 일본에 이어 제 2위, 그리고 83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제 1위의 수출국이 되었다.

마. Dumping 判定에 대한 한국측의 反應과 對應

이 점에 관해 제임슨記者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1) Dumping 판정 후 한국 Color TV 메이커의 對美投資가 가속되고 있다.

○(株) 金星社

1982년 최초로 미국에 생산거점을 둔 한국의 Color TV메이커인 同社는 알라바마州에 있는 현즈빌공장의 생산능력을 현재의 연간 15만대로부터 50만대로 확장중이다. 동시에 연간 20만대의 규모로 電子렌지의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三星電子(株)

뉴저지州 로스베리에 연간 40만대 규모의 Color TV 공장을 건설중이며 금년 후반에 조업개시 예정이다. 또 同工場에서 연간 40만대의 電子렌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건설중에 있다.

○大宇電子(株)

미국메이커와 합작으로 1 내지 2개 공장에서 Color TV와 電子렌지를 생산하기 위해 계획중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韓國電子業界는 미국에서 Color TV의 생산을 확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 電子렌지의 생산을 시작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電子렌지의 세계최대시장으로서 83년 일본의 對美輸出은 133만대에 도달했으며 또한 재미 일본계 메이커의 생산대수도 적지 않다. 그런데 Magnatron은 미국에서는 생산되지 않는다.

2) Dumping 판정 이전에 한국제 13인치의 Color TV 판매가격은 미국시장에서 135弗, 국내시장에서는 185弗(稅제외)로 판매되었는데, EIAK 朱理事는 한국 메이커는 미국시장에서 선전광고비와 판매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으나 한편 국내시장에 출하하는 TV 세트에는 100V와 220V의 두가지 전압용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國內외의 판매가격에 격차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한국의 Color TV메이커는 Dumping 사실을 부정하고 있으나 한국의 3대 메이커는 Dumping 판정 후 수출가격을 2% 인상, 국내가격은 2% 인하했다.

4) 「Dumping 판정을 받은 3대 메이커는 미국정부에 대해 4월 5일에 있는 ITC의 Dumping 판정을 再考해 줄 것을 요구했다. 6월 15일자 로이터통신에 의하면 볼트리지 상무장관이 이 재고요청에 동의했다고 한다.」

5) 「무역협회부회장은 인터뷰에서 한국 Color TV메이커는 금년의 對美 輸出을 150만 대(2억 1천 5백만弗)로 삭감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정부 및 업계측은 부회장의 발언을 확인하기를 거부하면서도 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TV digest 6월 25일자를 보면 금년 1/4 분

기 미국의 對韓 Color TV의 수입대수는 57만 7천대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8배이다.

第II部 韓·日 電子産業의 비교

當 공업회의 통계자료와 EIAK의 통계자료 「韓國 電子工業의 오늘과 來日」에 의거하여 1982년의 韓·日 電子産業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1. 韓·日 電子産業의 對比

1982년 현재, 한국의 電子産業의 규모는 일본의 9.1%로 아직 10%도 되지 않는다. 일본의 전자산업발달사를 보면 1967년에 일본전자산업의 생산액은 39억 6천 9백만弗(1조 4천 2백88억엔 - 1弗:360엔 환산)의 규모에 이르렀다. 따라서 1982년의 한국전자산업규모는 1982년부터 역산해서 16년전 일본 전자산업의 규모와 거의 맞먹는다고 할 수가 있다.

表 3. 韓·日 電子工業 生産額 對比 (單位: 百萬弗) (1982年)

	家庭用	産業用	部 品	合 計
日 本	14, 130	15, 668	14, 055	43, 854
韓 國	1, 549	633	1, 818	4, 006
韓國 / 日本	10. 9%	4. 0%	12. 9%	9. 1%

(1977年)

	家庭用	産業用	部 品	合 計
日 本	8, 355	7, 598	6, 511	22, 444
韓 國	633	154	926	1, 713
韓國 / 日本	7. 6%	2. 0%	14. 2%	7. 6%

(주) EIAK 자료로는 일본의 전자산업 생산액이 1977년분과 1981년분밖에 게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EIAK 자료의 1981년분은 EIAJ의 1982년통계로 대체했다. 또 엔·달러환율도 EIAJ의 기준을 사용했다. 따라서 表 3의 韓·日 電子 生産 規模의 비교는 EIAK 자료의 原數値와 조금 달라지고 있다.

2. 産業別 構成비의 對比

表 4. 部門別 構成比의 比較 (1982年)

	家庭用	産業用	部 品	合 計
日 本	32. 2%	35. 7%	32. 1%	100%
韓 國	38. 7%	16. 0%	45. 3%	100%

부품부분이 45.3%로 최대의 비율을 차지하

는 한편 산업용 부품의 비율은 16%로 대단히 낮다는 것이 일본과 대비했을 경우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산업용의 비율이 낮다는 것은 兩國間의 기술수준의 격차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정용의 비율은 일본보다 높다.

3. 兩國 電子産業의 종업원수

한국의 전자산업 생산액은 表 3과 같이 일본의 9.1%에 지나지 않는 데 비해 종업원 수는 일본의 28.3%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어림잡아서 韓國電子産業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일본의 3분의 1 이하라고 추계할 수가 있다.

表 5. 從業員數의 比較 (千人) (1982年)

	家庭用	産業用	部 品	合 計
日 本	267	281	385	933
構 成 比	28. 6%	30. 1%	41. 3%	100%
韓 國	56	34	174	264
構 成 比	21. 2%	12. 9%	65. 9%	100%

表 6. 輸出額의 比較 (1982年) (單位: 百萬弗)

	家庭用	産業用	部 品	合 計
(日本)				
金 額	10, 099	5, 320	7, 055	22, 474
構 成 比	44. 9%	23. 7%	31. 4%	100%
輸 出 比 率	71. 4%	33. 9%	50. 2%	50. 2%
(韓國)				
金 額	90. 6	207	1, 031	2, 144
構 成 比	42. 3%	9. 6%	48. 1%	100%
輸 出 比 率	58. 5%	32. 7%	56. 7%	53. 5%

4. 양국 전자산업의 부문별 수출비교

한국의 전자산업 수출비율(수출/생산)은 우리들이 상상하고 있을 정도로 높은 것이 아니라 일본의 경우보다 3.3% 높은 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수출액을 비교하면 한국은 일본의 9.5%이며 생산액 9.1%에 비하면 0.4% 웃도는 정도이다. 한편 家庭用機器의 수출비율은 일본에 밀리고 있다. 한국에서는 생산 및 수출이 전혀 없다고 보여지는 VTR을 제외하여 계산한 일본의 家庭用機器의 수출비율(64%) 보다도 밀

表7. 輸入額 對比 (1982年) (單位: 百万弗)

	家庭用	産業用	部 品	合 計
(日本)				
金 額	106	1,250	1,327	2,683
構 成 比	3.9%	46.6%	49.5%	100%
輸入 / 輸出	1%	24.8%	18.8%	12%
(韓國)				
金 額	97	650	1,230	1,978
構 成 比	4.9%	32.9%	62.2%	100%
輸入 / 輸出	10.7%	31.4%	11.9%	9.2%

돌고 있다. 이것은 일본의 家庭用 電子機器의 수출품목 중, VTR에 이어 높은 share(28%)를 차지하고 있는 Tape Recorder의 수출비율의 차이(일본 83%, 한국 61%) 및 Color TV의 수출비율(일본 49%, 한국 32%)에 의한 바가 크다. 다만 Color TV의 台數 base의 수출비율은 韓·日이 각각 46% 및 49%로 큰 차이가 없다.

한국의 수출지역별 구성으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對美 수출의존도가 50%로 높다는 것이다. (일본의 대미수출은 20%). 家庭用機器의 對美 수출비율은 밝히지 않았으나 아마 30%를 크게 웃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동을 포함하는 對아시아 수출비율은 25.5%로 일본의 25.6%와 큰 차이가 없다. 對EC 수출비율은 12%로 일본의 비율 24%의 절반이다. 對日 수출비율은 12%로 미국 다음이다.

5. 韓·日 電子産業의 輸入狀況 比較

한국의 전자제품 수입액은 특히 수출액과 비교해서 보면 일본과 대단히 대조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먼저 전자분야의 무역에 있어서 수입이 수출의 98%에 도달하여 거의 균형이 잡히고 있는데 비해 일본의 수입은 수출의 12%에 지나지 않으며 극단적인 不均衡을 나타내고 있다. 대미 무역에 있어서도 한국의 대미수입액(8억6천만 1백만弗)은 수출(10억7천4백만弗)의 80%에 이르고 있는데 비해 일본의 대미수입은 수출의 26%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일본의 대미수입 절대액(17억4천5백만弗)은 한국의 대미수입

절대액의 2배 이상이다. 産業用機器 部門은 일본의 수입액이 수출액의 약 4분의 1인데 비해 한국의 수입은 수출액의 3배 이상이다. 이것은 한국의 생산성 향상 및 Telecommunication의 Infra-structure(下部構造)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과 韓國의 電子産業技術水準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며 당연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 또 家庭用機器의 수입액이 수출액의 11%에 지나지 않는 것도 한국이 이 부문에서 수입 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는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품의 수입액이 수출액을 약 20%정도 웃돌고 있는 점에 우리들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전자부품의 품목별 수출입 balance는 表8과 같다.

表8. 電子部品の 輸出入 balance (1982年) (單位: 百万弗)

	輸 出	輸 入	balance	生 産	國內市場
電 子 管	7.5	31.6	- 24.1	194.2	218.3
I C	497.8	86.3	+411.5	490.0	78.5
半 導 體 素 子	125.6	44.2	+ 81.4	158.0	76.6
其 他 部 品	400.0	1,068.8	-668.8	975.6	1,664.4
計	1,031.0	1,230.9	-199.9	1,817.9	2,017.8

表8을 보면 「IC」가 4억弗 이상이 흑자인 데 비해 「기타 部品」이 약 6.7억弗 적자이며 部品 전체를 보면 약 2억弗이나 적자를 보고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기타 部品」을 일반부품의 piece-parts 그리고 아마 silicon wafer 등과 같은 부품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일반부품수출액은 43억6천4백만弗로 수입액 5억8천3백만弗의 7.5배나 되며 여기서도 양국 전자산업의 경쟁력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일반적으로 신흥공업국에서 비교적 강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일반부품이 한국에서는 일반부품을 중심으로 한 「기타 部品」의 무역수지가 대폭적인 적자를 보여, 輸入依存度가 6.5%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이며 IC의 수출액이 생산액을 웃돌고 있다는 점이며 이의 국내시장이 대단히 작다는 사실이다.

한 나라 전자부품의 경쟁력 우열이 그 나라 전자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규정짓는다는 엄연

한 사실로 미루어 판단한다면 한국의 電子産業은 아직도 충분히 강화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은 전자부품의 경쟁력 강화와 자급을 향상에 전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6. 韓·日의 전자분야에서의 무역 balance

EIAK의 통계에 따르면 對日輸出이 2억 5천 7백만弗, 對日輸入이 8억 2백만弗로 한국측이 5억 4천 5백만弗의 적자를 내고 있으며, 한편 일본의 통관 통계에 의하면 表9와 같이 對韓輸出이 6억 4천 8백만弗, 對韓輸入이 2억 9백만弗로 일본이 4억 3천 9백만弗의 흑자를 내고 있다.

表9. 韓·日 電子産業의 貿易 balance (1982年)

	家庭用	産業用	部 品	合 計
(엔베이스) (單位: 百万엔)				
日本の 對韓輸出	10,376	34,446	115,975	160,797
日本の 對韓輸入	3,967	3,351	44,652	51,970
(달러베이스) (單位: 百万弗)				
日本の 對韓輸出	42	139	467	648
日本の 對韓輸入	16	13	180	209

일본의 통관통계에 의한 1982년의 한·일종합 무역 balance와 전자관계의 무역 balance를 비교하면 表9와 같으며 전자관계의 일본측 무역 흑자가 종합흑자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부문별 무역품목을 보면 家庭用은 수출입 모두 Tape Recorder, 산업용은 일본의 수출이 電氣計測器 및 電子計算機, 수입이 電卓, 부품은 수출이 음향, Mechanism 부품, IC, 반도체素子 등이며 수입은 IKVA 이하의 트랜스, IC, 반도체素子 등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表10. 韓·日 貿易 balance와 電子關係의 貿易 balance와의 對比 (1982年, 單位: 百万弗)

對韓全輸出額	4,881
對韓全輸入額	3,254
對韓總合貿易 balance (a)	+ 1,627
對韓電子輸出額	648
對韓電子輸入額	209
對韓電子貿易 balance (b)	+ 439
(b) / (a)	27%

表9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對韓무역은 部品이 총수출중 2%, 총수입중 8.6%로 부품의 무역거래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表8과 같이 한국의 部品 총수입액이 12억 3천 1백만弗이기 때문에 FOB와 CIF의 차이를 고려하면 部品の 對日輸入은 한국의 총수입중 약 40%를 차지할 것으로 추계된다.

참고로 일본의 수출 대폭증가와 수입의 微減으로 일본의 흑자는 전년비 63% 증대하여 17억 7천 8백억엔에 도달했다.

84년~1, 5월은 반대로 일본의 對韓 수입신장이 수출신장을 웃돌았다. 能動部品の 수입증가가 주된 원인이다.

表11. 1983年の 輸出入 (單位: 億엔)

	家庭用	産業用	部 品	合 計	83 / 82
日本の對韓輸出	119	472	1,703	2,294	162%
日本の對韓輸入	20	20	475	515	99%

表12. 1984年 1~5月の 輸出入 (單位: 億엔)

	家庭用	産業用	部 品	合 計	前年同期比
日本の對韓輸出	61	199	887	1,147	146%
日本の對韓輸入	11	7	304	322	172%

7. 韓·日 電子産業의 動態의 比較

가. 表13에는 兩國 전자산업의 1977년과 1982년도의 생산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이 표에 의거하여 최근 5년간의 兩國 전자산업의 성장動態를 비교한 것이 다음의 表13이다.

表13. 1977~1982年間の 兩國 電子産業의 成長率 比較

	日 本	韓 國
77~82年間の 成長率	195%	234%
77~82年の 年平均成長率	14.3%	18.5%
77年の 韓·日規模比較	100%	7.6%
82年の 韓·日規模比較	100%	9.1%
77年の 世界電子産業中の share	17.0%	1.3%
82年の 世界電子産業中の share	19.7%	1.8%

註: 77년과 82년의 세계 전자산업의 규모. 따라서 그 속에 차지하는 일본의 share는 EIAK자료에 나와 있는 한국의 share에서 역산출했다. 이에 따르면 77년의 세계 전자산업규모는 1,317억 6천 9백만弗, 82년은 2,225억 5천 5백만弗로 되어 있지

만 이들 숫자의 정확성에 대해서 필자는 보장할 수가 없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2년으로 끝나는 5년간의 한국전자산업의 평균성장률은 일본보다도 약 4% 높으며 따라서 한국전자산업의 대일비율 및 전세계비율도 각각 1.5% 및 0.5% 상승하고 있다. EIAK 자료에서는 이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나. 한편 수출 신장률의 비교는 表14와 같으며 한국의 신장률 17.5%를 밀돌고 있다. 수출 최우선인 한국전자산업의 수출신장률이 일본을 밀돈 것은 주로 VTR 과 Computer 의 수출 여부에 의한 것이다. EIAK자료에는 양국의 수출신장률을 對比한 것은 없다.

한국의 1982년 21억弗 이상의 수출액 규모는 일본의 1963년과 1964년의 수출액을 합친 평균치와 거의 흡사하다.

8. 1980년대 한국전자산업의 전망

가. 中期展望

EIAK는 먼저 중기전망으로서 1984년과 1986년의 생산 및 수출액을 表14와 같이 예측하고 있다.

表14. 1977~1982年間の 兩國 電子産業의 輸出 伸張率 比較 (單位: 百万弗)

	1977年	1982年	82 / 77
(日本)			
家庭用	5,847	10,141	173 %
産業用	1,476	5,040	342 %
部品	2,596	7,055	272 %
合計	9,919	22,236	224 %
(韓國)			
家庭用	456	906	199 %
産業用	63	207	329 %
部品	545	1,031	189 %
合計	1,064	2,144	202 %

82년 이후 86년까지의 4년간 한국전자 산업의 평균 31.3%라는 생산신장률 전망은 表12에 나타나고 있는 77년 이후 82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의 실적 18.5%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또

82~86년간의 연평균 수출신장률 전망 32.0%도, 77년~82년간의 연평균 신장률의 실적 15.1%의 배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한결같이 높은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한국의 86년의 생산전망 119억弗은 일본의 1972년의 생산실적 123억弗을 약간 밀도는 규모이며 또 같은 해의 수출 전망 65억弗에 가장 가까운 일본의 수출실적은 1975년의 57억弗이다. 그런데 한국의 86년 전자제품의 전수출에 차지하는 share 전망은 19.4%로 되어 있다. 참고로 일본전자제품의 같은 share는 1983년에 18.9%를 달성했다.

나. 기술개발의 방향

다음으로 80년대에 있어서 한국의 전자산업은 어떠한 분야 어떠한 부문에 기술개발의 중점을 둘 방침인가에 대해 EIAK자료는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한국의 전자산업이 廣義의 산업용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하는 고도첨단기술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이표에서 분명히 읽을 수가 있다.

반도체의 기술개발에 관해서는 EIAK 자료는 表17과 같이 밝히고 있다.

다. 80년대에 있어서의 한국전자산업의 구조 변화

EIAK는 1980년대에 한국전자산업의 부문별 구성이 表15와 같이 바뀔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EIAK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쪽이 정확할 지도 모른다.)

EIAK자료는 3부문에 속하는 대표적인 품목으로서 다음과 같은 품목을 열거하고 있다.

表15. 韓國 電子産業의 中期 展望

(單位: 百万弗, 단 GNP는 百億원)

	1982年	1984年	1986年	年平均成長率
電子産業의生産額	4,006	6,906	11,900	31.3%
電子産業의輸出額	2,144	3,735	6,500	32.0%
G N P	4,827	7,185	10,692	22.0%
全輸出額	21,400	26,800	33,500	12.0%
電子輸出/總輸出	10%	13.9%	19.4%	

註: 82年~84年間과 84年~86년간의 年平均成長率은 全項目 모두 거의 같다.

○ 家庭用 部門
TV, Radio, Tape-Recorder, Amplifier, VTR 등.

○ 産業用 部門
Computer, 전자교환기, Facsimile, 계측기, 산업용 Robot

○ 部品 部門
반도체, 저항기, Speaker, Antenna, 인쇄회로기판(PCB).

表18의 구조변화는 80년대의 한국전자산업이 기술개발의 중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는 發想과 부합하고 있다. 즉, 同期間의 家庭用 비율 6% 減少와 部品部門의 12%의 減少와는 그대로 산업용의 비율인 18% 증가에 이어지고 있다. EIAK가 예측하는 1991년의 한국전자산업의 부문별 구성비가 우연하게도 10년전 일본전자산업

의 부문별 구성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된다.

라. 1991년의 한국전자산업의 推定規模

EIAK 자료에는 1986년 이후의 한국전자산업의 성장률에 대한 예측이 빠졌다.

가령 86년 이후의 연평균 성장률이 EIAK가 예측하고 있는 82~86년간의 비율 31.3%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극히 대담하게 假定, EIAK가 예측한 86년의 생산액 119억弗을 base로 계산을 해 보면 1991년의 한국전자산업의 생산규모는 464억弗이 된다. 이 생산액은 1982년 일본전자산업의 생산액 439억弗을 5.7% 웃도는 규모가 된다. 이 가정이 실현된다고 한다면 맨 처음에 기술한 대로 82년 한국전자산업의 규모는 일본의 1967년 생산규모와 거의 같아지며 일본보다 15년을 뒤진 한국은 10년 후인 1991

表16. 韓國의 電子技術開發 方向

分 野	現行 Level	80年代 中盤의 Level
家庭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테레오카세트 • 컬러 TV • VT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D • 音聲認識, 音聲多重, DBS, CATV • Camera 體型VTR
電子部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抵抗, Condenser 等の 回路部品 • 片面, 兩面 PC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ip 部品 • 産業用精密部品(多層, 可變配線板)
電子材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永久磁石의 一部 國産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adowmask • 人工水晶 • Epoxy 樹脂 • Ceramic 材料
産業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狹義의 産業用 (2) 醫用電子 (3) 放送用 (4) Compu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Hard ware (d) Soft wa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産業用 Robot • 生體計測裝置 • 高出力 TV 送信機 • 32 Bit 改良型(Operation Soft 包含) 國産化 • Olympic 競技進行 System의 開發 • CAD/CAM System에 의한 Factory Automation • 한글 Word processor • 觀光豫約 System 등의 生活情報化
(5) 電氣通信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電話交換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空間分割式電子交換機(PBX) • 時分割式電子交換機(EPBX) (b) 光通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短波長 System의 試驗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長波長 System의 開發供給

表17. 半導體의 技術開發

區分 \ 年度	1982年		1986年	1991年
研究開發	TR. SSI	MSI	LSI	VLSI
製品生産	Transistor (Radio用)	民生用IC의 生産輸出 産業用IC의 (時計, 電卓用)	輸入代替 (Micro processor, 電算機, 通信機用 等)	高度技術 IC의 開發
基礎素材	Lead, Frame	Silicon wafer	單結晶 Silicon, FPI wafer	樹脂, 化工 藥品

表18. 80年代의 韓國 電子産業의 構造變化

	'81	'86	'91	'81年日本
家庭用	42%	40%	36%	35%
産業用	13%	24%	31%	33%
部 品	45%	36%	33%	32%

表19. 1991년의 韓國 電子産業의 부문별 豫想生産 額과 1982년의 日本 電子産業의 實績과의 비교

(單位: 億弗)

日本, 1982年(實績)	韓國, 1991年(豫想)	
家庭用	141	167
産業用	157	144
部 品	141	153
合 計	439	464

년에는 兩國의 격차는 9년으로 좁혀진다.

韓國의 전자산업이 1991년에 464억弗 규모를 달성하고 또한 부분별 구성이 表18대로 된다고 한다면 3부문의 생산액은 다음과 같이 된다.

우리들은 1982년의 일본전자산업의 3 부문에 대해 각각 어떠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떠한 품목이 leader 품목인가를 충분히 알고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表19의 왼쪽과 오른쪽 칸의 숫자를 유심히 비교해 보면 1990년대 초까지는 전자산업 전반에서 상당한 기술혁신이 실현되어 다수의 신제품이 시장에 나올 것

으로 확실시 되지만 일본으로서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第三部 韓·日 電子産業의 상호관계

1. 과거 수년간 양국간의 일반무역관계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다.

가. 한국은 對日貿易이 1980년~1983년 평균 全貿易額의 20%(수출이 15.7%, 수입이 23.9%)를 차지하여 일본이 주요한 무역상대국으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일본은 對韓貿易이 全貿易의 3.3%(수출이 3.9%, 수입이 2.7%)를 차지하는데 불과하며 貿易額으로 볼 때 한국은 그다지 큰 무역상대국이라 할 수 없다. 이것은 주로 양국 경제규모의 격차에서 오는 것이다.

나. 무역수지는 언제나 일본의 흑자, 한국측의 적자로 되어 있다. 일본의 통계에 따르면 1980년~1983년간 일본의 누적흑자는 89억弗, 연평균 22억弗이며 한국측의 통계에 의하면 각각 105억弗 및 26억弗로 되어 있다.

이 貿易不均衡은 일본의 對韓輸出이 주로 내수용 및 수출용 제품의 제조에 없어서는 안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生産財로 구성되어 있는 데 반하여 한국의 對日輸出은 주로 섬유, 식료품 등과 같이 수요의 價格彈性値가 낮은 소비재이기 때문이다.

다. 兩國間의 무역규모는 1979년에 100억弗의 절정에 도달한 후 80년대에는 축소경향을 보이고 있다. 80년대에 무역규모가 최대에 이른 1983년에는 96억弗에 그쳤다.(한국측 통계)

이것은 80년대에 들어 한국측으로 볼 때 對日輸出의 둔화, 對日輸入이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對日輸入의 감소는 최대의 무역적자 상대국

으로부터의 수입을 규제하는 한국정부의 이른바 「수입다양화정책」에 의한 바가 크다.

2. 전자부문의 양국 무역관계는 1에서 기술한 전반적인 한일무역관계와는 상당히 다른 實態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한국측에서 볼 때 電子의 對日貿易額은 電子의 全貿易額 가운데 25.7%를 차지했고(수출이 12%, 수입이 41%)(1982년). 한편 일본측에서 보면 1980년~1983년의 평균실적으로 對韓 電子貿易은 對韓 全貿易額 가운데 11.2%(수출이 13.5%, 수입이 7.2%)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全電子貿易 가운데 對韓貿易의 share는 3.8%(1980년~1983년 평균)로 그다지 크지 않으며, 電子의 對韓貿易黑字도 항상 크다.(1980년~1983년 일본의 對韓貿易 누적 흑자 89억弗 가운데 20억弗)

그러나 韓·日貿易 전체가 1979년을 頂點으로 80년대에 들어 축소경향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하여 兩國間의 전자분야의 무역액은 1983년에는 1979년에 비해 60%, 약 1천억엔 확대 되었다.(한국측 통계를 입수하지 못하여 일본측 통계로 잡음)

3. 일본전자산업의 對韓企業進出에는 1970년대 후반 이후 문제가 생기고 있다. 즉, 투자의 후퇴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當 公明회가 79년 11월 현재 및 83년 9월 현재로 조사한 「해외생산법인 List」 즉, 비교해보면 同期間에 당공명회의 회원으로 한국에 投資(주로 合作)했던 51社 가운데 11社가 철수했음을 알 수가 있다. 다만 이 사이에 새로 9社가 진출했지만 예를 들면 싱가포르의 경우 이 사이에 신규진출 9社, 철수 1社로, 한국과 싱가포르를 비교하면 일본의 전자산업이 한국으로부터 철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코노미스트」誌의 금년 7월 31일자에 의하면 1977년부터 83년 말까지 한국으로부터 철수한 주요 일본계 합작기업 17社 중 電子業體가 8社에 이르고 있다.

韓·양국의 전자산업의 상호관계로 봐서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경향이라고 판단되는 일본계 전자기업의 잇달은 한국으로부터의 철수는

한마디로 일본측 입장에서 볼 때 진출 merit가 급속히 소멸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1981년 당공명회가 파견한 동남아 전자공업조사단은 이에 대한 사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철수 원인〉

1) 생산요소

가) 원재료·부품가격의 인상(석유제품·전력의 인상 등.)

나) 고금리·자금조달난 (예금금리, Prime rate가 연20%를 넘는 기간이 오래 계속된 외에 해외로부터의 외자도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다) 국제경쟁력의 저하(일본과 비하여 생산공정의 자동화 속도가 뒤지고 자동화 시설을 도입해도 상각부담이 커져 일본 쪽에서 싸 cost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이 나오고 있다)

라) 노동력의 질은 뛰어나지만 자기중심의 행동이라든지 기술의 私物化, 그것을 가지고 他社로 轉轉하는 것 등이 마이너스.

마) 「Made in Korea」에 대한 평가가 낮다.

2) 정책요인

가) 租稅減免 조치의 완료(법인세 등의 5년간 면제와 그후 3년간의 50% 감면조치가 8년 經過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철폐된다)

나) 수출비율의 強制(각종 우대조치의 반대급부로서 높은 수준의 수출비율이 의무화되어 수출경쟁력이 떨어진 단계에서 국내판매에다 活路를 찾으려 했을 때는 압박원인이 된다.

다) 국산화율의 인상요구(이것을 받아들이면 국제경쟁에 이길 수 있는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3) 경제동향

가) 경제성장의 둔화, 물가상승, 국제수지의 적자

나) 1979년부터의 정치·사회의 격동은 한국에 대한 Country risk 의식을 높여 외자의 유입이 감소했다.

다) 한국제품에 대한 구미에서의 수입 제한(Color TV의 미국과 영국의 Quota 등) 무

역마찰이 발생하기 시작했으나 수출선의 전환도 잡지 못하는 어렵고, 국내판매도 금지 또는 약간의 비율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

4) 내부요인

- 가) 합작상대방의 선택과 제조품의 選定을 誤算(대형기업의 철수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 나) 값싼 노동력만을 찾아서 진출한 기업은 기술진보를 잘 헤쳐나갈 만한 힘(자본)을 축적할 수 없게 되었다. (중소기업의 철수에서 볼 수 있다)
- 다) 모기업의 힘이 약화되어 재투자, 확대를 할 수 없게 되었다.

4. EIAK의 전회장인 金박사는 1980년 몬테카를로에서 개최된 「세계의 전자산업-성공을 위한 전략」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한국의 전자산업에 대한 투자 및 기술수출에는 일본이 表20과 같이 압도적으로 큰 역할을 해왔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의 역할이 큰 원인으로서 그는 ㉠ 선진공업국 가운데서 일본이 가장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가 ㉡ 많은 한국인이 일본어를 다른 외국어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고 ㉢ 다른 나라의 전자산업보다도 일본의 전자산업이 한국에다 투자를 하여, 국내용 및 수출용으로 再加工하기 위해 생산제품을 일본으로 수입하는 경향을 많이 볼 수 있는 것과 ㉣ 다음 가장 중요한 한국의 생산환경이 일본과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에 일본의 기술이 한국인으로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소화하기가 쉽다는 등 네 가지 점을 들고 있다. 동시에 그는 투자 및 기술수입의 상대국을 앞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강조했다.

5. 그러나 「3」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일본 전자산업이 對韓投資, 技術移轉에서 쓴 경험을 한 것, 한국전자산업이 종래의 노동집약형으로부터 고도첨단기술 지향으로 크게 정책을 바꾸고 있는 것, 기술도입과 합작의 상대방을 다양화하려고 한국이 시도하고 있는 것 등의 이유로 최근 한국전자산업은 반도체, Computer, 전기통신 등 고도첨단기술분야에서 미국기업과의 제휴, 합작에 크게 기울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일본 이탈 경향은 韓日兩國의 전자산업에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다지 바람직스러운 현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1955년 경에 개발도상국에 대해 섬유와 화학비료 분야에서 플랜트를 수출하는 문제를 놓고 크게 논란을 벌인 일이 있었다. 결론은 「일본이 그들에게 플랜트를 輸出하는 것을 거부하더라도 결국 그들은 일본 이외의 선진국으로부터 플랜트를 구입하게 될 것이다. 기계설비나 원재료의 수출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플랜트를 수출하는 쪽이 일본의 국익에도 합치한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인식은 현재도, 또 다른 산업에서도 변함이 없다.

물론 고도첨단전자분야의 합작기업 설립과 기술이전에 있어서 일본으로서 그 시기와 조건 등에 대해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일본의 전자산업은 과거의 경험에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

6. 최근 歐美의 전자업계와 정보교환을 할 때 반드시 그들로부터 NICS, 특히 한국으로부터의 수출공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는다. 이에

表20. 韓國電子産業에 대한 外國投資 및 技術輸出(1979年 10月末) (電氣通信關係의 技術은 除外)

(單位: 件數)

	家庭用			産業用			部 品			合 計		
	日本	美國	기타 를포함 合計	日本	美國	기타 를포함 合計	日本	美國	기타 를포함 合計	日本	美國	기타 를포함 合計
外國投資(合作 포함)	22	5	27	17	7	25	124	1	125	163	13	177
技術輸入	23	12	37	18	2	24	80	30	110	121	44	171

대해 우리쪽은 「상품의 Life cycle 을 고려하고 종래의 주력상품이 성숙기를 지나 그 설계와 사용부품이 표준화되어 NICS가 기술적으로 그것을 생산·조립할 수 있게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우리들은 새로운 고도기술을 필요로 하는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주력상품으로서 도입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방침으로 임한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Transistor Radio로부터 VTR에 이르기까지 몇 번이고 이러한 주력상품의 Shift를 해왔다」고 그 때마다 똑 같은 말을 하고 있다. 그들은 현실에 있어서 NICS로부터 Color TV를 중심으로 한 家庭用 전자기기의 수출공세에 봉착하고 있으며 이에 질리고 있기 때문인데 일본측의 이론으로서 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결국 그들로서 는 수입제한 내지 자율규제 요구라는 수단으로 호소할 수밖에 도리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家庭用 電子機器를 주축으로 하여 발전해 온 일본의 전자산업은 대단히 유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 일본의 家庭用機器 및 그 부품의 가격, 및 비가격 경쟁력은 技群이며, 일본보다 수십년 늦게 이 분야에 뛰어들어 한국을 비롯한 NICS로부터의 家庭用機器의 수출공세를 당할 우려가 없다. 당공업회가 조사한 「家庭用電子機器의 中·長期展望」을 보면 1991년의 세계 家庭用機器는 電子需要의 44%가 현재 전혀 시장에 나와 있지 않은 상품으로 차지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현재 그러하듯이 예견할 수 있는 장래에도 家庭用 관계의 技術 移轉으로 한국을 포함한 NICS로부터의 Bumerang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7. 家庭用機器의 분야에서는 일본의 국내시장에 대한 Bumerang 현상은 확실히 발생하지 않았으나 제 3국시장에서는 일본제품은 한국 등

과 같은 NICS의 제품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러나 NICS가 제 3국으로 家庭用機器를 수출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일본으로부터 部品이나 産業用 電子機器를 수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어 제 3국시장에서의 경합으로 일어나는 마이너스 요인을 그만큼 상쇄하게 된다고 할 수가 있다.

8. 産業用電子機器에 대해서는 미국이라는 강한 經濟 상대가 존재하고 있다. 일본이 家庭用 部門에서 보인 바와 같이 시기가 좋고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분야로 여하히 전환할 수 있을 것이냐가 고도첨단기술산업의 핵심인 産業用 電子機器 및 Micro Chip에 관한 일본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한국 등과 같은 NICS에 대한 技術移轉의 열쇠를 쥐게 될 것이다.

9. 美·日·歐의 3대 선진공업국은 각각 동남아, 중남미 및 아프리카, 중동과 같은 역사적으로 강력한 관계를 가지고 地理적으로 접근한 市場背景을 가지고 있다. 3대 선진공업국의 경제적 번영이 이들 배후시장의 정치·경제적 안정 및 공업화의 Level로 크게 지배되는 것은 제 2차 석유위기 후의 3대 선진공업국의 경제 Performance의 차이에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동남아제국의 공업화가 진전되는 것은 일본의 경제적 번영에 직접 이어지는 것이다. 공업화가 진전된 동남아제국의 공업제품이 일부 분야에서 일본제품과 경합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들은 이것을 위협이라고 받아들여서는 안되며 오히려 바람직스러운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일본의 전자산업도 이상과 같은 시야가 넓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對韓 Approach를 필요로 할 것이다.